

『조선예술』 1993년 북한연극 읽기

- 조국해방전쟁승리 40돐 기념해, 드디어 김일성 수령형상 연극 <승리의 기치따라>를 -

북한에서 1993은 조국해방전쟁승리 40돐 기념해이다. 연극계는 작년 5월 23일 김정일이 1992년 5월 23일에 발표한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의 창작성과에 토대하여 문학예술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에서 가극에서 5개, 연극에서 5개의 작품을 새롭게 창작하여 다시 1970년대와 같이 무대에서의 부흥을 지시했음을 강조한다. 따라서 92년부터 준비해온 연극 <승리의 기치따라>를 올해 완성할 것이라 하는데, 이는 실천에서 지켜졌다. 한편 **국립민족예술단**에서는 민족가극 《심청전》의 시연회 단계에 이르렀음을 밝히며, **인형극부문**에서는 장막인형극 《울리지 않는 종》을 창작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 작품들이 1993년에 공연된 기록이 없다.

드디어 수령형상작품, 혁명연극 <승리의 기치따라>

1993년에 주목해야 할 작품이다. 김정일이 16차례의 지도를 한 작품으로, 1990년대 시작한 새로운 5대 혁명연극의 하나(아마도 첫 작품인 것으로 짐작됨)이다. 이 작품은 혁명적 대작으로 칭송받는데,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탁월한 군사전략가, 백전백승의 영장으로서 김일성과 그의 위대한 인간적 모습을 감동적으로 형상화했기 때문이다. 김일성은 이 작품에서 항상 모든 문제를 여유 있게 해결하고, 결정적 승리를 이룰 수 있는 전법을 제시하는 지도자, 동시에 아버지적 사랑을 베푸는 감동 깊은 인간으로 구현된다. 류만은 수령형상을 격식화하거나 기정사실화하지 않고 생활적으로 진실하게 형상화 한 것에 커다란 감화력이 있음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점이 이 작품이 혁명적 대작이 되는 이유로 꼽고 있다. 그런데 김일성이란 인물이 직접 무대에 나온 것으로 짐작되는데, 그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는 점이 의아스럽다. 대사를 보면 김일성의 대사가 있고, 간혹 문헌에서 ‘김일성의 영상을 모시고’라는 글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후속확인이 필요하다. 1993년 4월 25일 김일성은 이 작품을 보고 치하의 말을 내렸다고 한다.

이 작품에서도 배우들은 여전히 ‘체험의 연기’를 중시한다. 그들은 진실성을 추구하는데, ‘truthful to actor’가 아니라 ‘truthful to character’라는 점이 특징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연기의 양식은 리얼리즘(realism)이라기보다는 낭만주의(romanticism)적이라고 보아야 한다. 무대 자체가 프로시니엄 아치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이다.

김정수